

한 학기 한 권 읽기

중고 엄마, 제발 좀 사가세요!

중고 엄마,
제발 **좀** 사가세요!

한 세경 동화 / 이연정 그림



스토리북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읽기 전 활동	내용을 이어 봐요!	만족도
		☆☆☆☆☆

[2국02-03]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 ‘중고 엄마, 제발 좀 사가세요!’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순서를 정한 다음, 어떤 내용인지 한 문장씩만 적어봅시다.

(주인공은 시후입니다.)

	
	1
	

1 같은 반 친구가 시후 필통을 보며 자기가 버린 필통이라고 말합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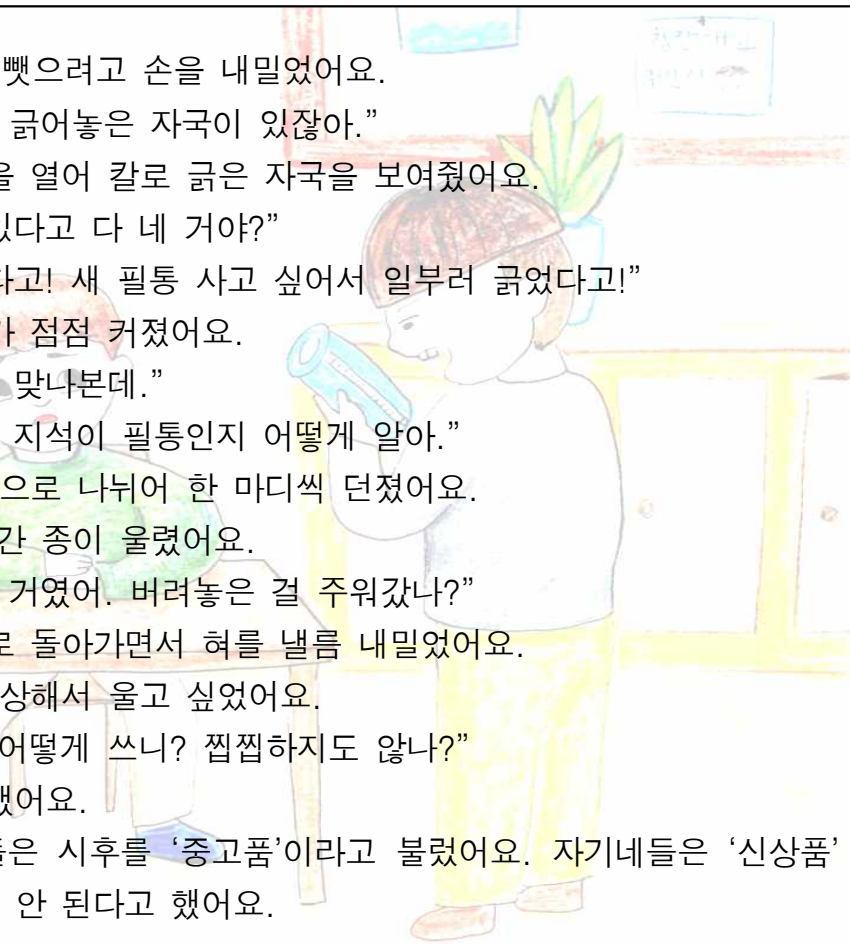
3

4

읽기 중 활동	나라면 어땠을까?	만족도
		☆☆☆☆☆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 지석이는 시후의 중고 필통을 살피며 자신이 버린 필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로 시후는 친구들에게 ‘중고품’이라고 놀림을 당합니다. 내가 놀림을 당하는 시후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후가 필통을 뺏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여기 봐. 내가 긁어놓은 자국이 있잖아.”
 지석이는 필통을 열어 칼로 긁은 자국을 보여줬어요.
 “긁힌 자국이 있다고 다 네 거야?”
 “내건 내가 안다고! 새 필통 사고 싶어서 일부러 긁었다고!”
 지석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석이 필통이 맞나본데.”
 “이름도 없는데 지석이 필통인지 어떻게 알아.”
 아이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한 마디씩 던졌어요.
 그 때, 수업 시간 종이 울렸어요.
 “암튼, 이건 내 거였어. 버려놓은 걸 주워갔나?”
 지석이가 자리로 돌아가면서 혀를 낼름 내밀었어요.
 시후는 너무 속상해서 울고 싶었어요.
 “남이 쓰던 걸 어떻게 쓰니? 짹짹하지도 않나?”
 아이들이 수군댔어요.
 그 뒤로 친구들은 시후를 ‘중고품’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네들은 ‘신상품’이라 중고랑 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읽기 중 활동	내가 위로해 줄게	만족도
		☆☆☆☆☆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 신상만 사준다고 자랑하던 성진이가 시후의 ‘중고 엄마’를 사러 나왔습니다. 가지고 싶은 물건은 넘쳐나지만 정말 갖고 싶은 엄마는 늘 바빠서 얼굴 볼 시간이 없지요. 그런 성진이의 마음을 달래줄 편지를 적어봅시다.



“학교 끝나면 학원을 세 군데나 가야해. 집에 들어와서 이모가 차려놓은 밥을 혼자서 먹어. 엄마는 내가 잠든 뒤에 들어와서 아침에는 자고 있어. 잠든 엄마 얼굴 밖에 기억 안 나.”

성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맛있는 밥을 해주고, 간식 챙겨주고, 어서 오라며 반겨주는 엄마가 필요해. 그런 엄마랑 살고 싶어. 이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읽기 중 활동	중고마켓	만족도
		☆☆☆☆☆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 내가 가진 물건 중에 중고마켓에서 팔고 싶은 물건이 있나요? 내가 올린 중고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하는 글을 써 봅시다.

팔고 싶은 물건	
팔고 싶은 이유	

제목	
이 물건의 좋은 점 *좋은 점을 자세하게 적기	
이 물건의 상태 *물건이 깨어졌는지, 낡았는지 등의 보이는 모습	
생김새 *사진 찍어 붙이기 또는 그림으로 그리기	

읽기 중 활동	선물로 위로하기	만족도
		☆☆☆☆☆

[2국05-04]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시나 노래, 이야기 등으로 표현한다.

※ 시후 엄마는 시후가 엄마를 팔기 위해 중고마켓에 올린 걸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드디어 내가 팔려가는구나!’하고 기뻐하지는 않았겠지요? 시후 엄마를 위로하는 말과 시후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선물을 준비해 봅시다.



* 시후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어떤 선물로 시후 엄마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읽기 후 활동	생각 펼치기	만족도
		☆☆☆☆☆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 동화는 상상 속의 세계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꾸며 쓴 글입니다. 만약, 현실에서도 사람을 사고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을 정리한 다음, 서로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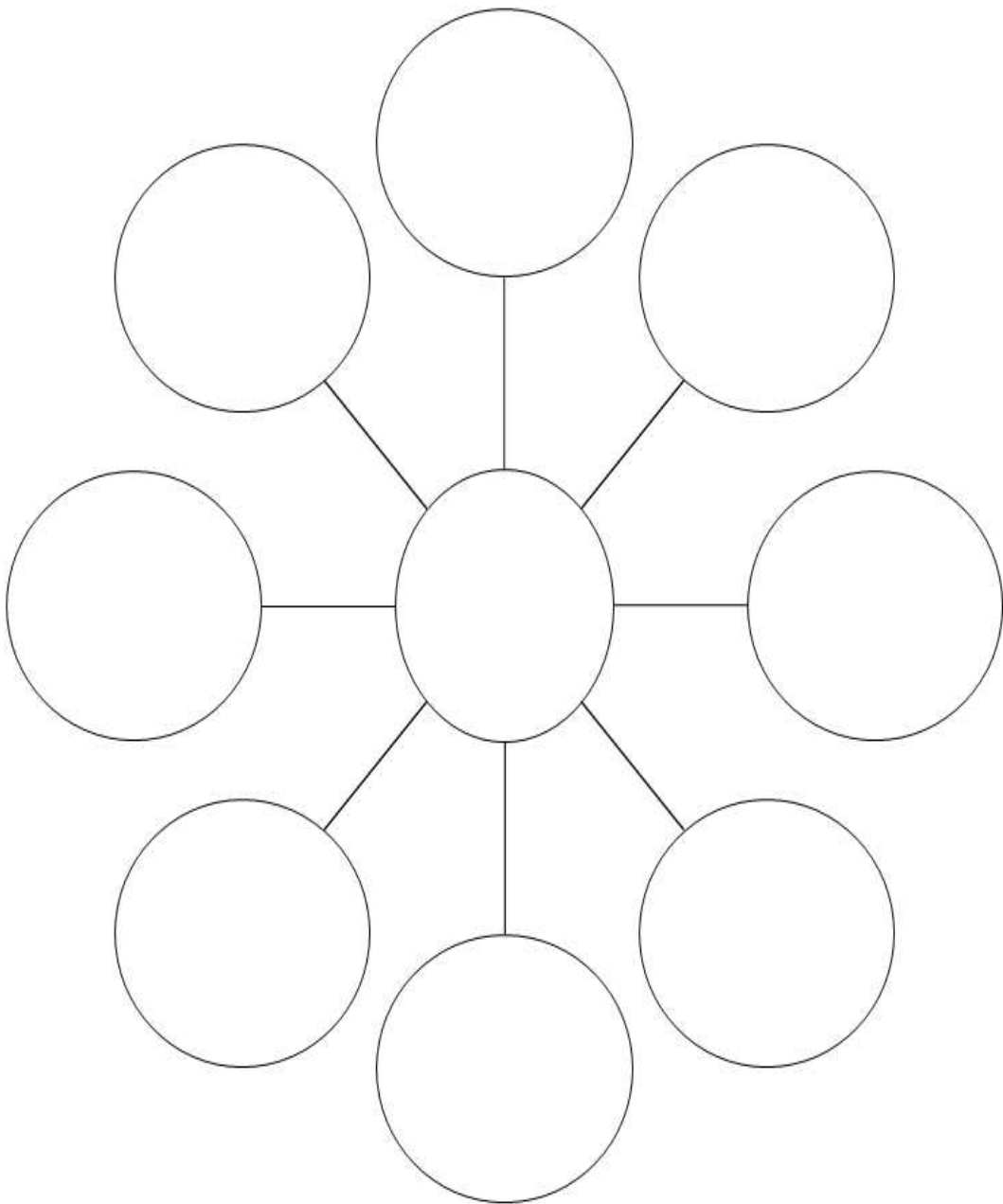


*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하겠지요?

읽기 후 활동	즐거워 책읽기	만족도
		☆☆☆☆☆

[2국02-05]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 ‘중고 엄마, 제발 좀 사가세요!’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읽기 후 활동	정리 퀴즈!	만족도
		☆☆☆☆☆

※ ‘중고 엄마, 제발 좀 사가세요!’의 전체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 시후가 학교에서 ‘중고품’이라고 놀림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① 시후가 중고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 ② 중고품이 새 물건보다 많기 때문에
 - ③ 시후 엄마가 시후에게 중고학용품을 사주었기 때문에
 - ④ 시후 엄마가 중고학用品을 중고마켓에서 팔기 때문에

- 시후 엄마는 틈틈이 구입한 중고품으로 무엇을 하였나요?
 - ① 중고품으로 멋지게 카페를 꾸몄습니다.
 - ② 중고품을 다시 중고마켓에 팔았습니다.
 - ③ 중고품을 이모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 ④ 시후 친구들에게 중고품을 자랑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후 엄마가 친구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아줌마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버리는 건 흠, 뭐랄까…….”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내가 ()을 억지로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 물건은 그 ()이 다할 때까지 사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보기	중고, 새 것, 헌 것, 좋아하는, 싫어하는, 쓰임, 용도, 능력
-----------	--------------------------------------